

부모놀이치료를 이용한 대학생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Effectiveness of Pre-parents Education Program for Undergraduate Students through Filial Therapy

장미경 · 임원신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Jang, Mikyung · Lim, Wonshin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describe the effectiveness of group filial therapy program for undergraduate students in the period of their pre-parenthood. The goal was to enhance empathy in adult-child interaction, to facilitate students' sensitivity to the child, and to reduce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The program was implemented once a week for 8 weeks. Each session was implemented for 120 minutes. The subjects were 13 undergraduate students(22-24 years old) and 13 children(4-10 years old). Pre and post-tests were implemented. After 8 week intervention program,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re and post-tests. The undergraduate students improved in their empathy in adult-child interaction and enhanced sensitivity to child

Key Words: pre-parents education program, filial therapy, Play therapy, empathic interaction

I. 서론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으며 그에 반해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들은 증가하고 있다(Guerney & Guerney, 1989). 아동문제의 주요한 원인은 부적절한 부모역할, 가족구조의 문제로 인한 부모역할 부재, 가족관계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있다(VanFleet, 1994). 또한 가족제도의 변화로 부모역할의 모델이 될만한 성인이 많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나 부모가 되는 세대의 증가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유안진, 김연진, 1992; 유안진, 신양재, 1993). 이는 청년기의 발달과업으로 결혼과 가정생활, 자녀양육 등에 대한 준비가 중요한 과업이 되었음을 의미한다(Duvall, 1977; 김지은, 1999).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부모역할의 학습부족, 청년기발달과업의 중요성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아동에게 미치는 부모의 역할에 대한 개입으로써 예방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조기개입이 빠를수록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높여준다.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있어왔다. 154명의 임신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STEEP프로그램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 여성과 비교했을 때 참여한 어머니들이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 생활경영기술, 우울증세, 아기가 보이는 신호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했다(Erickson & Egeland, 1999; Egeland & Erikson, 1993). 미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아동발달지식과 아동을 다루는 기술이 향상되었고 부모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나 아동의 진로에 관하여 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되었다(김경희, 이재연, 1989). 또한 유아와 그 부모를 위한 조기중재 프로그램으로 헤드스타트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로 조기중재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더 어린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또는 임신 중에 있는 예비부모에게까지 개입하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Powell, 2001).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

Corresponding author : Jang, Mikyung
Tel: 041)580-2322 Fax: 041) 580-2320
E-mail: jangmiky@nsu.ac.kr

에서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것들이다.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은 이미 부모가 된 사람에게 실시하는 사후처방적인 부모교육과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방적 접근에서의 예비부모교육이 있다(이병래, 1991).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비부모교육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대학생으로 하는 경우,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예비부부 또는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나은경, 1992). 예비부모교육의 내용은 소수전공자를 제외하면 혼인강좌, 예비결혼강좌, 출산과 육아 등에 치우쳐 있고 아동의 심리와 발달, 바람직한 양육태도,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제경숙, 1989; 이병래, 2003; 정미라 외, 1995) 결혼 전 예비부모교육의 대상자 중에서도 대학생 시기는 예비부모교육이 가장 유용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효용 뿐 아니라 이 시기는 결혼, 자녀양육, 가정생활 등에 대해 관심을 가장 많이 갖는 시기이고 결혼에 대한 준비로서 자유로운 이성교제를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효용적이라는 측면에서이다(권석만, 1998; 이병래, 2003).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생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와 관련된 연구들이 충분하지 못하다. 최근 들어 몇 편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고선주, 조은숙, 옥선화, 1998; 신혜영, 1996) 관련 교재들이(조성연, 1998, 문미옥, 2001) 출판되었으나 부분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에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구체적인 기술과 지식도 필요하지만 예비부모교육 대상자들이 모두 곧바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 뿐 아니라 아동에 대한 태도나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아동관의 변화를 함께 추구하는 프로그램이 적절하다(이병래, 2003).

놀이의 교육적, 치료적 가치는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으며 놀이를 활용하여 정서, 행동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들을 변화시켜 왔다. 놀이치료는 치료적 기능 뿐 아니라 모든 중재접근과 마찬가지로 예방적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예방적 차원에서 놀이치료의 부모-자녀관계적 관계형성 방법과 태도를 입상의 치료대상이 아닌 일반인에게 적용한 것이 부모놀이치료(filial therapy)이다. 즉 전문가를 통한 아동 심리치료 방법을 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장시키고자 한 시도가 부모놀이치료(filial therapy)로서(Guerney, 1964, 1976),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위한 문제 예방의 대행자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방법이다. 부모놀이치료는 부모에게 놀이상호작용의 기본 기술을 가르쳐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와 직접 놀이시간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부모-자녀관계를 강화하고 건강한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에

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VanFleet, 1994; Bratton & Landreth, 1995; Guerney, 1997). 부모놀이치료 프로그램은 개별이나 집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주로 C. Rogers의 내담자중심 이론에 근거를 둔 아동중심 놀이치료 이론에 근거해 이루어지며, 이외에도 행동주의의 강화, 사회학습이론의 모델링, 사회적 강화 기술 등을 사용하며 정신분석 이론의 정화개념 등도 사용한다(Johnson-clark, 1996). 이 프로그램은 아동의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 교사등과 같은 준전문가들에게도 확장되었다(장미경, 2000, 손금옥, 2000, Brown, 2000; White et al., 1997; Bratton, Ray, & Moffit, 1998; Bratton, 1993;).

부모놀이치료를 사용한 부모교육의 효과측정은 여러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만성질환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불안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부모의 무력감, 죄책감, 분노 등이 감소하였다(Glazer-Waldman, 1991). 부모놀이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종료 후 3년 동안 프로그램의 효과를 추적한 연구에 의하면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개선, 부부의사소통의 개선, 자녀행동문제의 개선이 3년 동안 지속되었다(Bavin-Hoffman, 1995). 우리나라의 유치원, 어린이집에 취원한 아동의 부모들을 위한 부모놀이치료 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있었다(장미경, 1998). 이 외에도 이혼한 부모(Bratton, 1995), 성학대 피해아동의 부모(Costas & Lobaugh, 1998), 학습장애아동의 부모(Kale & Landreth, 1999)등에게도 실시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Jones(2001)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부모놀이치료 기술을 가르치고 이를 초등학교생들에게 적용케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고등학생과 초등학교생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참여 고등학생들의 공감능력, 아동의 자기안내 허용, 아동에 대한 개입이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대학생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부모놀이치료의 상호작용방법을 도입코자 하는 이유는 놀이치료에서 추구하는 성인(또는 치료자)과 아동의 관계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와 맺게 되는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모델로 하기 때문이다(Des Lauriers, 1962; Brody, 1995; Hurry, 1998). 아동의 심리적 성장은 타인의 자아와 관계 맺는 것에 좌우되며 어린 아동은 아동의 자아양육에 헌신하는 엄마와 관계 맺는 것에 좌우된다(Brody, 1995; Des Lauriers, 1962). 건강한 부모-자녀관계를 놀이장면에서 재현하고 아동은 이 관계 속에서 왜곡된 성장을 회복하며 안정되고 건강한 부모-자녀관계를 맺어 가게 된다.

또한 놀이는 아동과 가장 잘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되어 왔다. 놀이는 아동의 언어이기 때문에 놀이감을 선택하고 다루는 방식 자체가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며 따라서 아동을 돌보는 성인이 아동과 상호작용을

시도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의 의사소통을 이해 하려면 아동의 놀이상호작용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 (Landreth, 1991; Ginott, 1961; Frank, 1968, 1955; A. Freud, 1950; Delpo, 1967; Axline, 1947, 1955).

본 연구에서는 놀이치료의 기본기술을 부모에게 가르쳐 부모가 직접 자녀와 가정에서 놀이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교육하는 부모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예비부모인 대학생들에게 적용시켜 그 효과를 측정하고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서의 적용가능성을 측정코자 한다. 부모놀이치료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가 놀이상호작용을 통해 부모-자녀관계를 강화하고 아동문제 예방을 위한 구체적 기술을 가르치며 동시에 부모가 자녀를 보는 아동관, 양육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ang, 2000; Landreth, 1991, Bratton, 1999, Guerny, 1964, 1976, 2000).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놀이치료 프로그램은 현재의 부모 뿐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양육에 필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인-아동상호작용의 공감능

력과 아동에 대한 민감성을 증진하고 아동의 행동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II. 대학생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Guerny(1964)가 개발하고 Landreth(1991)가 단기화한 부모놀이치료 프로그램을 <표 1>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목표

- 1) 대학생 예비부모에게 아동과의 놀이상호작용을 통해 성인-아동 상호작용의 공감능력을 증진한다. 이를 위한 하위목표는 수용적 의사소통기술의 향상, 아동의 자기안내 허용, 아동에 대한 관여의 증가이다.
- 2) 아동의 행동문제를 감소시킨다.
- 3) 대학생 예비부모의 아동에 대한 민감성을 증진한다.

표 1. 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

회기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1회	I. 이름표 달기, 두 명씩 짝이 되어 자기소개하고 상대방이 발표하기 II. 장래 부모로서의 이상적 부모상과 자녀에 대한 기대 토론하기 III.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놀이의 의미 2. 놀이치료에서 따온 테크닉 IV. 기본 일정 소개 V. 반영적 경청 VI. 이번 주에 읽을 과제 : “경청” 과제: (1) 아동의 신체적 특징을 알아오기 (2) 한 주 동안 반영적 경청을 실천하기(4가지 기본 감정에 대해) (3) 한 주 동안 반영적 경청 한 예 적어오기
2회	I. 과제복습 : (1) 신체적 특징 (2) 4가지 기본 감정 II. “부모놀이치료의 기본 원칙”토의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놀이감 목록 알아보기(시범상자소개) 2. 놀이세션 하는 방법 III. 놀이치료장면을 녹화한 비디오 테입 시청 또는 실제 시범보이기 IV. 짝이 되어 역할놀이를 하면서 반영적 반응하기 실습 과제: (1) 특별한 놀이치료세션을 위한 놀이감 준비 (2) “촉진적인 반영적 의사소통” 유인물 읽어오기 (3) 놀이치료세션을 실시한 시간과 장소 정하기-다음주에 발표하기
3회	I. 과제복습 : (1) 놀이감 준비 (2) “반영적 의사소통” 유인물을 작성했는가 (3) 놀이세션을 진행할 시간과 장소를 정했는가 II. 부모놀이치료의 기본규칙 놀이세션을 위해 규칙을 복습 III. 첫 번째 예비부모의 녹화 테입을 본다. IV. 이번 주에 비디오를 녹화할 예비부모 정하기 과제: 이번 주부터 놀이세션을 가정에서 시작하기

4회	I. 보고하기. 놀이세션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II. 유인물 : “두 가지 혼육기술” 혼육과정에서 이것을 첫 번째 단계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검토하기 III. 비디오녹화 할 다음 예비부모 정하기 IV. 지난주에 부모-자녀 놀이세션 녹화한 것 보기 과제: 가정 놀이세션 하면서 이번 주에 스스로에게 느낀 강력한 감정을 인식하기
5회	I. 예비부모로서 느꼈던 강력한 한가지 감정과 함께 보고하게 하기 II. 유인물 : “제한 설정이 효과가 없을 때” III. 비디오 녹화 할 다음 예비부모 정하기 IV. 부모-자녀 놀이세션을 녹화한 것 보기 과제: (1) 놀이세션을 계속하기 (2) 한 가지 선택주기 연습
6회	I. 놀이세션과 한 가지 선택하기에 대해 보고하기 II. 유인물: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III. “제한설정이 효과가 없을 때” 유인물 검토하기 IV. 부모-자녀 놀이세션 녹화한 것을 보고 피드백주기 V. 다음 비디오 녹화 할 예비부모 정하기 과제: (1) 3주 동안 아동에게서 주목되는 점을 노트해오기(아동의 긍정적인 성격자질) (2) 놀이세션 계속하기-나타난 놀이패턴에 주목하기
7회	I. 아동의 놀이패턴에 대해 보고하기 II.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 복습하기 III. 부모-자녀 놀이세션 녹화한 것 보기 IV. 유인물: “완벽주의(민감한 부모로서의 완벽함)에 대해 배우기” V. 다음번에 비디오 녹화할 부모님 정하기 과제: (1) 계속 놀이세션 갖기
8회	I. 간단히 보고하기 II. 마지막 부모-자녀 놀이세션 녹화한 것 보기 III. 지금까지 중요했던 규칙이나 주의사항을 복습하기 IV. 끝내기 과정 아동과 예비부모의 차이점, 변화내용에 대해 나누기 긍정적 변화에 대해 서로 피드백 하고 격려하기 V. 계속 놀이세션 갖기

III. 연구방법

2. 연구도구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천안에 위치하고 있는 한 대학교의 4학년 학생 가운데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13명을 모집하여 구성하였다. 이들의 연령은 22세에서 24세였으며 각각 2명(15.4%), 8명(61.5%), 3명(23.17%)이었다. 대학생들이 놀이세션을 아동과 일대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아동의 수도 13명이었다. 이 아동들은 대학생들의 친척이나 이웃에 있는 아동들로 구성하였다. 아동의 성별은 남자 7명(54.6%), 여자 6명(45.4%)이었으며 연령은 만 4세 1명((7.7%), 만6세 3명(23.1%), 만7세 4명(30.8%), 만8세 2명(15.4%), 9세 1명(7.7%), 10세 2명(15.4%)이었다.

1) 성인-아동 상호작용 공감척도(MEACI)

성인-아동 상호작용 공감척도는 아동에 대한 성인의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성인과 아동이 상호작용 할 때 성인 쪽에서 보이는 공감을 조작적으로 정의한 것으로, Stover, Guerney & O'Connell(1971)들이 독립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장미경(1998), 이상희(2003)가 번안한 것을 사용했다. 이 척도에서 측정하고 있는 세 가지 하위변인은 (1)수용적 의사소통 (2)아동의 자기안내 허용 (3)성인의 관여이다.

채점방법은 사전과 사후 검사 시에 촬영한 20분짜리 비디오 테이프를 3분 간격으로 6번 나누어 성인행동의 3가지 차원을 5점의 양극척도로 표시한다. 공감행동과 관련된 모든 하위척도를 고려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의 공감이

이루어질 때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1)성인이 아동의 행동을 완전히 돌볼 때 (2)순수하게 허용적인 태도로 아동의 감정표현이나 행동을 자주 칭찬할 때 (3)아동이 자기 지시적 행동을 할 때 완전히 허용함을 분명히 표현 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의 공감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1) 아동이 성인으로부터 원하는 반응을 얻기 위해 말이나 행동을 반복하거나 정확히 하려는 아동에게 부모가 휘말리거나, 부모가 다른 생각에 빠지거나, 말하지 않을 때 (2)아동의 행동이나 말을 비판하고 거부할 때 (3)아동을 속이고,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고, 아동의 행동에 방향을 지을 때. 토의를 거쳐 20분짜리 놀이세션을 평가하는 훈련을 3회에 걸쳐 실시한 후에 3명의 평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하위변인과 총점에 대해 평가자간 신뢰도를 구하였으며 그 범위는 .97에서 .99 사이였다.

2) 아동청소년행동평가척도(K-CBCL)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가 아동들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아동행동목록을 실시하였다. 이 행동평가척도는 4-1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7가지 영역의 행동문제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사용하였다.

3. 연구설계 및 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설계는 단일집단 전후검사 설계로서, 동일한 집단에 대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 모집은 프로그램의 취지와 시간을 알리는 홍보물을 대학 내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집단활동에 적합한 인원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3명을 선발하였다. 프로그램 중간에 탈락한 인원은 없었다. 프로그램은 2003년 7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 1회 2시간씩, 총 8회를 실시하였고 질적 분석을 위해 전 과정을 녹음하였다.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1주일 전에 사전모임을 실시하여 모임의 취지, 방법 등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대학생과 아동의 사전놀이세션을 비디오로 촬영하였다. 아동의 행동문제 개선을 평가하기 위해 K-CBCL을 아동의 보호자에게 주어 작성해 오도록 하였다.

매 모임 때마다 대학생들은 시범과 역할극 그리고 비디오테입 시청 등을 통해 놀이상호작용기술을 배웠으며 3회가 끝난 후부터는 대학생의 가정이나 아동의 가정으로 돌아가 30분씩 주 1회 놀이세션을 실시하고 다음 모임 때 그 경험을 발표하고 피드백과 수퍼비전을 받았다. 각 대학생들에게 가정에서 놀이세션을 실시할 때 필요한

약간의 놀이감 세트를 주었다. 또한 매주 한 명씩 정하여 아동과의 놀이장면을 비디오로 녹화하고 다음 모임 시간에 시청하면서 집단리더와 다른 집단구성원들로부터 피드백, 지지, 격려 등을 받게 했다. 마지막 모임이 끝나고 나서 사전검사 때 실시한 것과 동일한 K-CBCL을 실시하고 사후 MEACI평가를 위해 대학생과 아동의 놀이세션을 녹화하였다.

4. 자료분석

결과분석은 paired-t test를 실시하였다. 참여아동중 한명은 K-CBCL을 실시하기에 연령이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여 행동문제 평가대상 아동수는 모두 12명이었다. 또한 현상학적 관점에서 질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부모들의 상호작용의 공감능력 변화를 MEACI의 하위변인에 따라 분석하였다. 채점은 MEACI 비디오 녹화분석을 한 3명의 대학원생이 평가하였다.

IV. 연구결과

1. 양적 분석

부모놀이치료를 통한 예비부모의 프로그램 참여가 공감능력을 변화시켰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MEACI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한 결과가 <표 2>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3개의 하위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어, 예비부모의 아동에 대한 수용적 의사소통 기술이 향상되었고, 성인의 주도 보다는 아동의 자기안내를 허용하는 예비부모의 자발성이 높아졌으며, 아동에게 초점을 맞추고 아동에게 관여하는 태도가 향상되었다.

<표 3>과 같이,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예비부모와 놀이세션을 한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보호자의 지각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K-CBCL을 실시한 결과 아동의 부적용행동 점수는 감소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프로그램 참여가 아동의 행동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MEACI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 비교

변인	검사 n	M(SD)	t
수용적 의사소통	사전 13	11.00(3.03)	5.37***
	사후 13	11.62(2.84)	
아동의 자기안내 허용	사전 13	8.53(3.53)	5.95***
	사후 13	17.23(3.68)	
관여	사전 13	8.85(3.93)	3.41***
	사후 13	16.31(5.75)	
총점	사전 13	28.78(9.54)	5.74***
	사후 13	51.92(10.57)	

** p<.01 *** p<.001

표 3. K-CBCL 검사 결과

변인	검사n	M(SD)	t
행동 사전	12	17.67(13.18)	-1.18
문제 사후	12	15.25(8.80)	

2. 질적 분석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대학생 예비부모와 아동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일주일 동안 각 참여자들에게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비구조화된 질문을 한 결과를 MEACI의 하위변인에 따라 분석, 채점하였다.

1) 공감능력의 증진

■아동에 대한 수용적 상호작용

사례E 하는 행동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이유에 대해 읽어주고... 저 나름대로 그 짧은 시간에 아이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교차하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사례F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감정을 읽거나 아이랑 놀이하는 것이 많이 편해지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애가 막 화를 내고 그러면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혼내고 그랬을 텐데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애가 무엇이 맘에 안들어서 그러냐구...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사례H 아이랑 놀면서 어떻게 상호작용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정말로 해보니까 아이반응이 다르다

는 것을 알았어요.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그런 면에서 뜻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례I 저한테 가깝게 다가오고 제가 받아주고, 반응해주고 하니 애도 잘 하고 더 좋아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애가 많이 변한 것 같고요.

사례J 감정 읽어주는 것을 평상시에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니 진짜 좋았구나”, “아, 기다렸구나” 사소한 건데 그런 식으로 애기 해주면 “어, 정말이야!” 하면서 얘기하고, 그럴 때마다 저도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애의 감정을 맞췄다는...애도 좋아하니깐 그러면 그냥 기분이 뿌듯하고...집 분위기 좋아졌고요...

사례L 아이들이 대답을 하거나 이야기 할 때, 좀더 제가 관계형성하는 것처럼 대답을 해줄 수 있고, 또 상호작용 같은 것도 더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구요...

■아동의 자기안내 허용

사례G 항상 아이들을 마주할 때 ‘안돼, 이거 하지마’,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만 대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아이들의 감정을 읽어줄 수 있었던 거 같구요. 그래서 그런지 ‘안돼’라고 할 때보다 아이들이 저를 더 따르는 거 같더라고요

사례F 애들은 어리니까 내가 해주어야 해’ 이런 게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거든요. ‘아이도 할 수 있구나. 아이도 어리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사례I 애들을 좋아하긴 하면서도 제가 따듯하게 못한 것 같아요. ‘안된다’, ‘하지마라’하면서 제한을 많이 하고 저한테 맞추려고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놀이를 하면서요 저도 처음에 배우면서 하니깐 저도 많이 틀려지고 저로 인해서 애도 많이 틀려진 것 같아요...

■관여

사례D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시간을 즐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되게 좋았구요...

사례F ‘놀이하는 30분이 왜 이렇게 안가냐’ 그러면서 시간이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애 중심이기 보다는 감정도 못 읽어 준 것 같고 진짜 멍뚱뚱 보기만 한 것 같고. 애도 별로 재미있어 하는 것 같지 않고...그런데 계속 세션이 지나면서 저도 시간을 안 보게 됐어요. 놀다 딱 시간을 보면 5분 남았고...

사례J 아이도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제 방에 와서 기대고, 얘기하고 싶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니깐 아이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상호작용이 점점 좋아지는 걸 느꼈구요...

사례K 어른들 세계에서나 친구들 세계에서는 자꾸만 서로 배려하고 마음을 알려고 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아이들하고는 그게 아니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아이를 생각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배우고서 진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례L 아이를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 이걸 하면서 아이에 대해서 좀더 집중할 수 있고...

2) 아동에 대한 민감성 증진

사례A 아동의 이름을 잘못 부른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아이가 집에 가서 왜 자기이름을 이상하게 부르냐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해야 할지 몰라 그 다음 시간에도 가만히 있었는데 교수님 얘기 듣고 이름을 잘못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더니 그 다음부터 아이가 저한테 말도 잘하고 자기 마음을 너무 잘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라고 그냥 넘어 가는 게 아니라 어른이 있는 그대로 마음을 아이한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건지 알았어요.

사례B 이 애는 맨 날 똥 그림을 그렸어요. 처음에는 추상적인 그림도 그렸는데...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되어갈 쯤에 구체적인 것을 그리기 시작하더니 서서히 자기감정을 드러내는 느낌이 들었어요(자신에게 장애가 있는 것에 대한 감정을 말함). 장애인을 우스꽝스럽게 그려놓고 그 뭐랄까 히스테릭한 웃음을 웃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 말고도 다른 아이들을 대하는 것도 달라졌어요. 아이들하고 상호작용 하는 게 편해졌고...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도 유심히 보게 됐어요...

사례C 애 얼마나 친할머니가 워낙 엄해서 꾀소리 못하고 살다시피 했는데 이걸 하면서 아이가 때부리고 소리치르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애기 때 충분히 애기 노릇을 못한 거 같아요...

사례E 이 아이는 아픈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놀이하는 걸 보니까 병원놀이 장난감을 가지고 자기가 아팠던 내용을 놀이하는 것 같았어요...동네에서 어린 아이랑 엄마랑 있는 관계 속에서 애들이 떼를 쓸 때가 있잖아요. 아이가 얘기하는 관점은 저건데 엄마는 영똥한 소리로 대답을 해주는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저 말이 아닌데'하는 그런 마음이 들구요...한번쯤은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게 됐다구 할까...

사례F 애가요 (식당에)너무 방치를 해워서 놀이할 때 식당놀이가 되게 많구요. 말하는 것도 네 살 같지 않게 얘기하구요....

사례J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고, 정말 책으로 보는 것보다 한번 해보니까 훨씬 낫다는 말이 맞는 것 같구요. 경험을 하면서 아이랑 저는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아주 미세하게 변하는 것도 자꾸 관심이 가지니까 사소한 것도 자꾸 관심 가져서 얘기하게 되고, 보게 되고, ...

사례M 이걸 하고나니까 제가 아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생각이 들었구요...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잘 하는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놀이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처음 본 그런 이미지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례L 조카 뿐 아니라 교회나 뭐 다른데서 만나는 아이들에게도 말 한마디 건넬 때 좀 더 배웠던 것을 응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3) 기타

*예비부모 자신에 대한 깨달음

사례A 개인적으로도 많은 소독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한 사람이라도 저를 싫어하는 것에 대해 못 참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애들한테도 그랬어요. 아이와 놀이를 할 때 저를 공격할 때가 있었는데 그걸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저에 대한 공격성인 줄 알고 그것에 대해 연연했던 것 같아요.

사례B 처음에는 제가 애기 같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스스로가 변한 걸 느껴요. 아이와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면서 아이와 매 토요일마다 만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내가 애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만 보호만 받으려는 그런 어린애가 아니라 이제 아이를 보호해야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첫 시간에 아이 신체특징을 알아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이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제가 정말 보호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아마 그런 과정을 통해 제 말투나 표정이 바뀌었을 거예요...

I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놀이치료 방법을 이용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대학생들이 아동들과 직접 놀이세션을 갖게 함으로써 예비부모와 아동의 놀이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공감능력을 증진하고 아동에 대한 민감성을 증진하며 아동의 행동문제를 개선코자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매주 2시간씩 총 8회에 걸쳐 부모놀이치료를 이용한 대학생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대학생 13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3회 후부터는 대학생 예비부모가 가정으로 돌아가 아동과 주 1회 30분씩 놀이세션을 갖도록 하였다. 부모놀이치료를 이용한 대학생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 예비부모의 성인-아동상호작용의 공감능력과 아동의 행동문제, 그리고 대학생 예비부모의 아동에 대한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이 프로그램 참여 후의 변화에 대한 자기보고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양적, 질적 분석을 병행한, 대학생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놀이치료를 이용한 대학생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대학생들이 아동과의 상호작용 시에 공감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하위변인들을 살펴보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언어적으로 아동과 수용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기술이 향상되었고, 성인이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주도하기보다는 아동의 주도를 따르고 허용하는 태도가 증진되었으며, 아동에게 초점을 맞추고 분산되지 않은 관심을 주는 관여가 증가했다. 또한 참여한 대학생들의 자기보고내용을 MEACI 하위변인에 따라 질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도 이러한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중 6명이 수용적 상호작용기술이 향상되었다고 했으며, 3명은 아동의 자기안내 허용, 4명은 아동에 대한 관여가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교사를 대상으로 부모놀이치료 방법을 실시한 손금옥(2000), 장미경(2000), 그리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Jones(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대학생들과의 놀이세션에 참여한 아동들의 행동문제가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지는 않았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K-CBCL 검사에 참여한 아동 수는 모두 13명이었으며 이 중 2명은 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참여후가 행동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아동의 부모들이 보고하여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는데 기여했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아동의 행동문제를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 처음에 부모들이 자녀의 문제를 실제보다 적게 보고하였다가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자신의 상황이나 자녀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서 사실 그대로 보고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교육에 참여한 아동의 부모들이 학력이나 자녀에 대해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차츰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게 됨에 따라 문제를 더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장미경(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부모놀이치료를 이용한 대학생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참여 대학생들의 아동에 대한 민감성을 증진시켰다. 참여대학생중 8명이 아동에 대한 민감성이 증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질적 분석을 통해 나타났는데, 참여한 대학생 예비부모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동의 언어와 행동의 의미, 동기 등에 대해 민감해졌으며 아동의 행동이나 행동의 변화, 그리고 발달수준을 보편적인 발달수준과 비교하는 등 아동에 대해 민감해졌다는 보고를 하였다.

넷째, 계획하지 않은 결과지만 참여 대학생 중 2명이 자신들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문제로 인해 아동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성격을 변화시키려는 인식이 생겼다고 보고했다. 자신의 미성숙하고 의존적인 성향으로 인해 아동에게도 성인인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성인의 의도대로 따라주기를 바랐으며 그렇지 않을 때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어려웠다고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기의 정서, 행동문제가 증가하고 있고 부모-자녀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부모가 될 사람들에게 부모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동과의 관계형성기술을 가르치고 아동의 행동문제를 예방해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상적인 부모-자녀관계를 가정한, 놀이치료에서의 성인-아동관계에서 활용되는 기술들을 장래의 부모가 될 대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 효과를 측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학생 예비부모들이 실제로 아동과 놀이를 통해 상호작용을 해봄으로써 실제 상호작용에서 경험할 수 있는 관계형성이나 기술들을 연습하고 활용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는 양적 연구 외에 질적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양적 연구에서 간과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더욱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 표집수가 적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집단에 실시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검증은 통제집단을 형성하지 못했으며 효과의 객관성을 위해 앞으로의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부모놀이치료, 놀이치료, 공감적 상호작용

참 고 문 헌

- 고선주, 조은숙, 옥선화(1998). 부모기전이기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모형개발: 부모되는 길라잡이. *대한가정학회지* 제 36권 5호, pp.167-185.
- 권석만(1998).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 심리학*. 서울:학지사.
- 김경희, 이재연(1989). *부모교육*. 서울:양서원
- 김지은(2000).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도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32권 제3호, pp.47-58.
- 나은경(1992). 고등학생의 부모기에 대한 이해와 유아기 자녀교육에 관한 태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미옥(2001). *예비부모교육*. 서울:양서원.
- 손금옥(2000). 교사-아동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예비교사의 공감 및 교육신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신혜영(1996).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오경자, 홍강의, 이혜련(1997). K-CBCL 아동청소년행동평가척도, 중앙적성연구소.
- 유안진, 김연진(1992). *부모교육*. 서울:동문사.
- 유안진, 신양재(1993).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역할 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 pp.141-155.
- 이병래(1991). 결혼 전 여성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병래(2003). 대학생을 위한 예비부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 *유아교육연구* 제23권 제1호, pp.133-152.
- 이순희(1986).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관 및 자녀관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미경(1998). 아동중심놀이치료 기법을 이용한 부모-자녀 관계증진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미경(2000). 유아교사의 민감성증진과 아동의 행동문제 개선을 위한 Kinder Therapy의 효과, 제 1차 한중 학술심포지엄, 북경대학.
- 정미라, 이희선, 배손연(1995). 대학생들의 예비부모교육에 관한 인식 및 요구. *유아교육연구*, 15(1), pp.179-197.
- 제경숙(1989). 고등학생을 위한 부모역할 교육의 교과과정 개발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xline, V.(1947). *Play therapy: The inner dynamics of childhood*. Boston: Houghton Mifflin.
- Bavin-Hoffman, R. (1994). *Filial therapy: A qualitative study of the parental perceptions of the process*,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en's University.
- Bratton, S. (1993). *Filial therapy with single paren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Texas.
- Bratton, S. C., Ray, D., & Moffit, K. (1998). Filial/family play therapy: An intervention for custodial grandparents and their grandchildren. *Educational Gerontology*, 24, pp.391-406.
- Bratton, S., & Landreth(2000), G. .Filial therapy with single parents: Effects on parental acceptance, empathy, and st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4(1), pp.61-80.
- Brown, C. (2000). *Filial therapy with undergraduate teacher trainees: Child-teacher relationship trai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Texas, Denton.
- Costas, M., & Landreth, G. (1999). Filial therapy with non-offending parents of children who have been sexually abused.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8(1), pp.43-6
- Delpo, R. M.(1967). Dynamics of play. In E. G. Delpo and S. B. Frick(1988). Directed and nondirected play as therapeutic modalities. *Children's Health Care*, 16(4), pp.261-267.
- Des Lauriers, A. (1962). *The experience of reality in childhood schizophrenia*. Connecticut: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Duvall, E. A.(1977).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Philadelphia: J. B. Lippincott.
- Egeland, B., & Erickson, M. F.(1993). Attachment theory and findings: Implications for prevention and intervention. In S. Kramer & H. Parens(Eds.), *Prevention in mental health: Now, tomorrow, ever?*(pp. 21-50). Northvale, NJ: Jason Aronson, Inc.
- Erickson, M. F., & Egeland, B. (1999). The STEEP Program: *Linking theory and research to practice*. *Zero to Three*, 20, pp.11-16.
- Fran, L. K (1968). Play is valid. *Childhood Education*, 32, pp.433-440.
- Freud, A. (1950). *Analysis of a phobia in a five-year old boy*. *Collected papers: Case histories*. New York: Basic Books.
- Ginott, H.(1961). *Group psychotherapy with children; The theory and practice of play therapy*. New York: McGraw-Hill.
- Glazer-Waldman, H. (1991). *Filial therapy: CPR training for families with chronically il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University of North Texas, Denton, TX.
- Guerney, B.(1964). Filial therapy: Description and rational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8(4), pp.303-310.

- Guernsey, B.(1969). *Psychotherapeutic agents: New roles for non-professionals, parents, and teachers*. New York: Holy Reinhart & Winston.
- Guernsey, B., & Stover, L. (1971). *Filial therapy: Final report on MH 18254-01*. Unpublished manuscript: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Guernsey, B. (1976). *Filial therapy as a treatment method for disturbed children*. *Evaluation*, 3, 34-35.
- Guernsey, L. (2000). Filial therapy into the 21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9(2), pp. 1-17.
- Hurry, A.(1998). *Psychoanalysis and developmental therapy*.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inc.: London.
- Johnson-Clark, K. A. (1996). *The effect of filial therapy on and neuroscience*. *Child Development*, 68, pp.970-987.
- Powell, D. R. (2000). The Head Start program. In J. L. Roopnarine & J. E. Johnson(Eds.), *Approaches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third ed.*(pp. 55-75). Columbus, Ohio: Merrill.
- Powell, D. R. (2001). *Parenting intervention programs for low-income populations*. 보육에서의 포괄적 보육서비스. 삼성복지재단 제 9회 국제학술대회.
- Powell, D. R.(2001). *Characteristics of high-quality programs of child care and early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보육에서의 포괄적 보육서비스. 삼성복지재단 제 9회 국제학술대회.
- Stover, L., Guernsey, B., & O'Connell, M.(1971).Measurements of acceptance, allowing self-direction, involvement, and empathy in adult-child interaction. *Journal of Psychology*, 77, pp.261-269.
- VanFleet, R. (1994). *Filial therapy: Strengthening parent-child relationships through play*, Florida: Professional Resource Press.
- White, J., flynt, M., & Draper, K. (1997). Kinder therapy: Teachers as therapeutic ag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6(2), 33-49.

(2003. 12. 23 접수; 2004. 03. 18 채택)